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김 은 주¹⁾ · 최 경 원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인구 10만명 당 28.4명이었으며 OECD 평균 11.3명보다 2배 이상의 수였다. 이중에서도 10대 ~ 30대까지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체 사망원인 중 가장 많았는데 2009년 기준으로 20대 사망자 중 44.6%가 자살로 사망하였으며 30대는 34.1%이었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2010). 이러한 젊은 청년층의 자살률 증가는 경제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계속되는 취업 실패와 경제적 파탄을 비판하여 자살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으며 자살 충동·시도 원인으로는 '경제 문제(등록금 포함)'가 57%로 1위를 차지하고, '취업문제'가 30%이었다(The Kyunghyang shinmun editor, 2011. 9. 28).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학생과 같은 성인초기의 대상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살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배제되어 왔다(Sohn, 2007).

자살과 관련된 행위 혹은 상태를 연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다. 즉 자살시도자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혹은 사후연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자살의도와 자살 행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자살생각은 실제로 자살을 행동

에 옮기기 전에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과정(Ha & An, 2008)이며 또한 자살 하는 것에 대한 생각(O'carroll, Berman, & Marris, 1996)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자살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의 행동들을 모두 포괄한다(Kim & Kim, 2008). 자살생각이 높은 집단은 자살생각이 낮은 집단보다 7배 이상의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Barrios, Everett, Simon, & Brener, 2000)처럼 자살위험에 대한 연구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대학졸업 후 취업의 불확실성에 의해 유발되는 취업불안은 지적, 정의적, 신체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성장할 대학생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등과 같은 반 사회적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Kim, 2004; Harnisch, 1999).

최근 대학 내 상담센터를 찾는 대학생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호소하는 문제 중 가장 많은 건수는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것이었다(Kim, 2003). 대학생들의 이러한 스트레스는 다양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병리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이어서 생리적 증상, 행동적 증상, 우울과 불안 등의 증상으로 발현되어지고 있다. 이럴 때 나타나는 불안감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서 다양한 신체적 증상은 물론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하며 대인관계 및 정상적 대학생활을 저해할 수 있다(Kim, 2004; Kim, 2003).

최근 대학생들 중 15~23% 이상이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

주요어 : 대학생, 취업불안, 우울, 자살생각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kimeju0409@sj.ac.kr)

2) 한북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투고일: 2012년 월 일 수정일: 2012년 월 일 게재확정일: 2012년 월 일

다고 하며(Park & Ha, 2007), Roh 등(2006)의 연구에서는 서울대학생 중 우울장애의 1년 유병율이 남학생이 19.3%, 여학생이 32.0%로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생의 정신건강의 취약성은 자살사고의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Yun, 1990). 그러나 진로로 인한 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각 개념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이후 대학생을 위한 취업 및 진로프로그램에서 취업불안이나 우울을 고려한 차별화된 진로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취업 및 진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고려하는 대학생들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을 파악하고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들의 취업불안,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한다.
- 대학생들의 취업불안,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대학생들의 취업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지방에 소재한 2개의 종합 대학교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수는 G*power 3 analysis software 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시 중간크기의 effect size .15, 유의수준 .05, 독립변수 3개를 포함하였을 때 검정력 .95를 유지하도록 하고 계산한 결과 표본크기는 최소 119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400명의 자료 중 355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자료분석에는 317부가 이용되었다.

연구 도구

● 취업불안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Cho(2008)이 개발한 취업불안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의 하위요인 즉 취업불안 상태(10문항), 취업불안 유발상황(11문항), 취업불안 유발원인(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취업불안상태는 취업불안을 느낄 때의 심리적 또는 신체적 상태를 말하며 취업불안 유발상황은 취업불안을 느끼게 하는 구체적인 장면이나 상황이며 취업불안유발원인은 취업불안원인을 느끼는 이유 또는 원인이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는 .956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967점이었다.

● 우울

Kim(1985)이 번역한 Beck의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Beck(1967)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21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점수는 각 문항의 1번에서 4번까지를 0점에서 3점까지로 처리하여 점수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 걸쳐 있다. 우울의 인지적(8문항), 정서적(7문항), 그리고 생리적(6문항) 영역으로 구분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심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총점이 0-9점이면 거의 우울이 없음(minimal depression), 10-18점이면 경증 우울(mild depression), 19-29점이면 중정도 우울(moderate depression), 30-63점은 중증 우울(severe depression)을 의미한다. 연구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84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897점이었다.

● 자살생각

각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Reynolds(1988)의 자살생각척도로 현재의 자살생각의 수준을 측정하는 3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이 척도를 Park(2006)이 수정보완한 것을 토대로 사용하였으며 Likert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으로는 ‘어떻게 자살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언제 자살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자살할 때 유서에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다’ 등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는 .97이었으며 이 도구의 신뢰도는 .906이었다.

자료 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이었으며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 기입하는 조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대학의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였거나 강의실에 모여 있는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에의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서 설문응답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익명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문항 작성 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설문지의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가 기록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회수 시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IRB 승인을 득하지 않은 연구이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윈도우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간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취업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317명 중에서 남성은 81명(25.6%), 여성은 236명(74.4%)이었으며 연령은 21세에서 25세까지의 연령이 235명(74.1%)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은 2학년이 105명(33.1%)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보건의료분야가 169명(53.3%)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 및 자살생각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17)

Variable	Item	N	%
Sex	Male	81	25.6
	Femal	236	74.4
Age	< 20year	64	20.2
	21-25year	235	74.1
	> 26year	18	5.7
Grade	1grade	55	17.4
	2grade	105	33.1
	3grade	84	26.5
	4grade	73	23.0
Major	Health, Medical related dept.	169	53.3
	Social & human science	78	24.6
	Science & engineering	57	18.0
	Art & physical education	13	4.1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학생의 취업불안은 평균 75.6(±22.4)점이었으며 하부 영역에서 보면 취업불안 유발원인이 3.3(±0.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불안상태의 평균이 2.4(±0.8)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학생들의 우울 최저치는 0점이었으며 최고점은 41점이었으며 평균은 10.17(±8.0)점이었었다. 인지적 우울은 4.0(±3.8)점이었으며 정서적 우울은 3.7(±3.3)점, 신체적 우울은 2.5(±2.1)점이었었다. 대학생의 자살생각은 최저점 14.0점이었으며 최고점은 82.0점이었고 평균 22.4(±10.2)점이었었다.

3.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r=0.48, p<.001$), 취업불안과 자살생각($r=0.27, p<.001$)과 우울과 자살생각($r=0.46, p<.001$)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우울 중에서 인지적 우울은 취업불안($r=0.49, p<.001$)과 자살생각($r=0.51, p<.001$)과 중증도이상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Table 2>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Subjects

(N=317)

Item	N of item	Range	Mean	Standard Deviation	
Job-Seeking Anxiety	Psychological & physical condition	10	1.0 ~ 4.7	2.4	.8
	Situation of arousing	11	1.0 ~ 5.0	2.9	.8
	Factor of arousing	7	1.0 ~ 5.0	3.3	.9
	Total	28	27 ~ 132	75.6	22.4
Depression	Cognitive depression	8	0.0 ~ 20.0	4.0	3.8
	Emotional depression	7	0.0 ~ 15.0	3.7	3.3
	Physical depression	6	0.0 ~ 13.0	2.5	2.1
	Total	21	0.0 ~ 41.0	10.2	8.0
Suicidal ideation	14	14.0 ~ 82.0	22.4	10.2	

<Table 3> Correlation among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N=317)

		Job-seeking Anxiety				Suicidal Ideation	
		Psychological & physical condition	Situation of arousing	Factor of arousing	Total		
Depression	Cognitive	r(p)	.46(<.001)	.42(<.001)	.45(<.001)	.49(<.001)	.51(<.001)
	Emotional	r(p)	.40(<.001)	.39(<.001)	.40(<.001)	.44(.339)	.42(<.001)
	Physical	r(p)	.22(<.001)	.40(<.001)	.28(<.001)	.26(<.001)	.17(<.001)
	Total	r(p)	.44(<.001)	.42(<.001)	.46(<.001)	.48(<.001)	.46(<.001)
Suicidal Ideation		r(p)	.29(<.001)	.24(<.001)	.27(<.001)	.29(.006)	1

<Table 4> Effects of Job-seeking Anxiety and Depression on the Suicidal Ideation of Subjects

(N=317)

	R ²	B	Standard Error	β	t	p
Job-seeking Anxiety	.08	.13	.03	.28	4.85	<.001
Depression	.23	.55	.08	.43	7.13	<.001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취업불안과 우울은 자살생각에 22.5%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42.3, p<.001). 각 변수별 영향을 확인해보면, 취업불안이 β=.28(p<.001), 우울이 β=.43(p<.001)의 영향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취업불안을 측정한 결과, 평균 75.6점이었다. 취업불안이란 취업을 앞둔 사람들이 취업준비과정에 느끼는 불안으로 적절한 수준의 취업불안은 취업준비에 대한 동기유발체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취업불안은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를 파괴하여 우울증이나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한다(Jung & No, 2001). 본 연구의 결과에서 대학생의 취업불안은 다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Cho(2008)의 연구에서 취업불안척도를 개발한 연구 결과인 75.9점(1,2학년)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3,4학년 고학년의 취업불안(83.5점)보다는 낮은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Cho, 2008).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취업불안의 하부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취업불안 유발원인이 가장 높았다. 취업불안 유발원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취업불안을 느끼는 이유 또는 원인으로 정의되며, 취업불안 유발원인에는 낮은 학교성적이나 저조한 영어능력, 부족한 취업준비 등과 같이 주로 자신의 내적인 원인과 전공학과 및 대학, 부모님의 기대와 같은 외적인 원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Cho, 2008). 즉 내적인 혹은 외적인 원인으로 대학생들은 취업의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일 경우엔 더 큰 위협과 함께 높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Lee, 1995)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개인의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위협 또는 위협을 주는 상황이나 사건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왜곡 해석함으로써 위협적인 사건의 발생가능성과 그 사건이 초래할 결과의 치명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Taylor, & Asmundson, 2004)이다. 한편 대학생들의 우울의 평균은 10.2점이었다. BDI(Berk, 1967)의 구분에 의하면(10-18점이면 경증우울) 경증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 중 인지적 우울 증상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인지적 우울은 미래, 사회 그리고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울 증상이 높았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물론 사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지 보다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인식에서부터 기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인식정도가 높아지는 것은 미래 사회의 일꾼을 교육하는 대학교육에서 커다란 도전일 것이다. 즉 대학생들의 대학교육은 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도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장되지 않은 혹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도전보다는 시도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우울이나 불안의 구체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세분화된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은 평균 22.4점(98점 만점)이었다. Sohn(2007)의 연구에서는 5.1점(36점 만점)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한 연구들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인 남학생의 평균 10.6점, 여학생의 평균 12.9점보다 낮았으나(Shin, Park, Oh, & Kim, 1990)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대학

생의 자살생각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 환경적 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한 복잡한 기전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므로 자살 요인에 대한 검토도 심리사회적 상황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Park, 2006; Kim, 2006).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문제는 무망감, 대인관계, 학업과 진로문제, 알코올과 성문제로 보고된 바 있다(Kim, 2009).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인지적 우울과 취업불안과는 .49의 중정도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대학생들에게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이후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이들에게 중요한 정서 심리적 이상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임이 분명하다. 여러 연구에서 청년실업이 청년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우울과 같은 정서문제를 일으키는(Axelsson, & Ejlertsson, 2002) 등의 정신건강에 문제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취업문제는 단순히 졸업 후의 문제가 아닌 일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우울과 자살생각의 상관계수 역시 중정도의 관계계수를 보였다. 청소년의 우울증상의 경험은 자살생각과 행동위험증가에도 명백한 관련성을 보인다(Mazza, 2000). 우울장애 고통의 위험성은 일생을 거쳐 증가하며 특히 9-19세에 더욱 심각해진다고 한다(Maris, 2000). 치명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면접한 연구에서도 우울, 주요 우울장애, 무기력감, 무가치감 등이 자살과 관련된 행동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Fergusson, Woodward, & Horwood, 2000). 자살생각을 강화시키거나 자살을 증가시키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 중 우울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바 우울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로 생각된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우울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중정도 이상의 우울증상을 보이는 학생을 선별하고 중재함으로써 더 심각한 상태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취업불안과 자살생각 역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자살을 고려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학업과 진로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생활과 진로문제에 대한 부담감은 학교생활의 불만족과 적응 문제를 야기하고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Kang, 2008). 즉 대학생 자살에 대한 문제가 개인적 차원이나 정신과적인 입장에서 숙고되어야 하지만 그와 함께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만족, 학업성취의 향상 그리고 진로성숙도 향상 등으로 심각한 상태의 전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은 자살생각에 대해 22.5%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한 심리적 기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취업불안이나 우울 외에 영향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지방에 소재하는 2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던 결과이므로 모든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 많은 지역과 학생수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의 정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취업불안과 우울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높은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있다. 또한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되어 있으나 취업불안과의 관련성을 찾아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생의 자살생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생들의 주요한 고민 중 하나인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한 것이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결과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에게 만연화되어 있는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서 심리적 요인들을 조기발견하고 중재하여 자살생각 및 극단적인 선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대학생은 취업불안의 유발 원인에 대해 불안정성을 보였으며 경한 우울을 보였다. 특히 인지적 우울경향이 뚜렷하였다. 대학생의 자살생각 정도는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는 중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취업불안과 우울은 자살생각에 22.5%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이 가지는 우울과 자살생각에 대한 정도를 확인할 뿐아니라 진로 및 취업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부담감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진로지도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에도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증상을 관리해 주어야 대학생의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될 것이다. 아울러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Kyunghyang Shinmun editor (2011. Sep. 28). As an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live in a country in which

- suicide.. *The Kyunghyang Shinmun*.
- Axelsson, L., & Ejlerthsson, G. (2002). Self-reported health,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mong young unemployed people: A population - based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1(2), 111-119.
- Barrios, L. C., Everett, S. A., Simon, T. R., & Brener, N. C. (2000). Suicide ideation among U.S.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5), 229-233.
- Ber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 Cho, G. P. (2008). A study of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job-seeking anxiety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6(2), 53-75.
- Fergusson, D. M., Woodward, L. J., & Horwood, L. J. (2000). Risk factors and life processes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suicid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Psychological Medicine*, 3(1), 23-39.
- Ha, J. H., & An, S. H. (2008). The verification of a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suicidal ideation to stress, coping styles, perfectionism.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4), 1149-1171.
- Harnisch, A. K. (1999). Job loss and unemployment research from 1994 to 1998: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 188-220.
- Jung, E. S., & No, A. Y. (2001). A study on relationship employment stress, depression,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33, 85-101.
- Kang, E. Y. (2008). A case study on suicide of university student. *Studies on Life and Culture*, 10, 47-70.
- Kim, H. J. (2004). *The relationship among employment stress, depressin, anxiety and physical symptom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book University, Daegu.
- Kim, H. S., & Kim, B. S. (2008). Verifica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suicidal ideation to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 201-219.
- Kim, H. Y. (2003). Report counseling center's result in 2003. *Journal of Counseling center*, 11, 145-154.
- Kim, J. J. (2006).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suicide prevention policy of murder-suicide and collective suicide. *Mental Health & Social Work*, 24(12), 125-157.
- Kim, J. J. (2009). An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suicidal ideation -Regarding effect of suicidal attempt experience, *Mental Health, Psychosocial Problems. Mental Health & Social Work*, 32(8), 413-436.
- Kim, Y. (1985). *A study of attribution factor of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2010). *Cause of death and sex: death rates by sex and age from 103causes according to the condensed list of general mortality in 2009*.
- Lee, H. J. (1995). *A study on decision making style and career decision level according to self-identity, locus of control and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Mazza, J. J.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and suicidal in school -based adolescents. *Suicidal & Life- Threatening Behaviors*, 30(2), 91-103.
- O'carroll, P., Berman, A., & Marris, E. (1996). Beyond the tower of babel: A nonmenclature for suicidology. *Suicidal of Life-Threatening Behaviors*, 26(3), 237-252.
- Park, B. K. (2006). *An Exploratory study of eco-system factors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University, Chungju.
- Park, K. H., & Ha, Y. S. (2007). Depression,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and coping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5(01), 17-25.
- Reynolds, W. M. (199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oh, M. S., Jeon, H. J., Lee, H. W., Lee, H. J., Han, S. K., & Hahm, B. J. (2006). Depressive disorders among the college students : prevalence, risk factors, suicidal behaviors and dysfunction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5(5), 432-437
- Shin, M. S., Park, K. B., Oh, K. J., & Kim, Z. S. (1990). A effect of depression and impulsivity 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9(1), 1-19.
- Sohn, J. N. (2007). Discriminating power of suicidal ideation by life stress, coping strategy,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ologic Mental Health Nursing*, 16(3), 267-275.
- Taylor, S., & Asmundson, G. (2004). *Treating health anxiety: a cognitive-behavioral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Yun, S. L. (1990).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suicidal idea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Effects of Suicidal Ideation on Job-Seeking Anxiety and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Kim, Eun Joo¹⁾ · Choi, Kyung Won²⁾

1)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2) Full-time Lecturer, Dept. of Nursing, Hanbuk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and 317 university students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at two. **Results:** The higher criteria of job-seeking anxiety of arousing job-seeking anxiety and the average score of depression was 10.2. average of suicidal ideation was 22.4. Result from correlational analysis indicated that suicidal ideation was significantly with job-seeking anxiety and depress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useful to develop reducing job-seeking anxiety and depression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We suggest more various to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various.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s well a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Students, Anxiety,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Eun Joo

Department of Nursing, in Sangji University

83, Sangjidae-gil, Wonju-si, Gangwon-do, 220-702, Korea

Tel: 82-33-738-7624 Fax: 82-33-738-7620 E-mail: kimeju0409@sangji.ac.kr